Digital & IT

인터넷 세상은 마이크로블로그 시대

‘세상의 정보’ 150자로 通한다

실시간 모바일 교감… 이용자들 빠르게 늘어

140자 ‘트위터’에 150자 ‘토종 블로그’ 맞불

지금 인터넷 세상은 ‘마이크로블로그(micro blog)’가 지배하고 있다. 150여자의 글에 인터넷 뿐만 아니라 세상이 들썩거리고 있는 것이다. 실시간으로 수만·수백·수천만명이 동시에 정보나 소식을 들을 수 있는 마이크로블로그는 ‘트위터’(www.twitter.com)로 대변되지만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다퉈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150자로 세상과 소통하다=마이크로블로그는 인터넷에 블로거가 올린 150자 가량의 정보를 해당 블로그에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통신 방식이다. 휴대폰이나 메신저, PC 등을 통해 150자 미만의 짧은 글을 올려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문자를 받는 형식으로도 곧바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나 국내에서 가장 성공한 서비스로는 트위터가 꼽힌다. 트위터는 140자의 글을 쓸 수 있지만 10글자를 더 쓸 수 있는 토종 마이크로블로그 서비스가 속속 출현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서비스는 미투데이(www.me2day.net)로 지난 2008년 NHN이 인수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트위터와 더불어 국내 대표적인 사이트로 자리를 잡고 있다. 미투데이는 실시간 검색, 멀티미디어 기능 탑재 등의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준비하면서 명실공히 국내 SNS 시장 1위 자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마이크로블로그 ‘요즘’(yozm.daum.net)도 지난달 서비스를 개시했다. ‘요즘’은 트위터와 달리 나이·성별·혈액형·취미·관심사 등 자기소개 기능을 강화해 좀더 다양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트도 마이크로블로그 ‘커넥팅’을 최근 공개했다. 싸이월드, 네이트온 등의 기존 인맥을 활용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네이트 서비스 사용자들의 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으로도 사용가능, 이용층 빠르게 늘 듯=지난 1일 폐막한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트위터 등의 마이크로블로그가 실력을 발휘했다.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선수와 팬들은 마이크로블로그를 활용해 결과를 실시간으로 올리고 정보를 교감하면서 동계올림픽의 인기를 올리는 데 한몫한 것이다.

이처럼 마이크로블로그가 뜨는 것은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마이크로블로그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는 점이 큰 요인이다. 이미 국내 아이폰 이용자가 40만명을 넘었고 옴니아 등의 국산 스마트폰도 저변을 넓혀가고 있어 인기는 이어질 전망이다.

게다가 국내 서비스업체들이 자사의 마이크로블로그를 알리기 위해 아이돌 마케팅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데다 NHN의 전략 자체도 미투데이를 정보 유통보다는 재미있는 소통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요즘’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 ‘커넥팅’도 싸이월드 일촌과 네이트온 버디 등을 바탕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표방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

미래 에너지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막한 ‘SWEET 2010’전에서 참석 인사들이 전시장 내 풍력발전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 19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12개국 160여개 업체가 참가, 풍력과 태양광, 수력, 지열 등 다양한 미래 에너지를 선보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전남 상장사 ‘주총의 계절’

부국철강 등 19개사 잇따라 개최

광주 전남지역 주요 상장사들의 주주총회가 이달 하순에 잇따라 개최된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부국철강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유가증권 시장 9개사와 코스탁 시장 10개사 등 모두 19개사가 주총을 갖는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9일 부국철강, 대한화섬, 화천기공, DSR제강, 동아에스텍 등 5개사가, 26일에는 코스닥 시장의 광전자, 한국고덴시, 파루, 지앤알, 성원 파이프, 폴리플러스, 와이엔텍 등 7개사가 정기 주총을 연다.

유가증권 시장의 대유 신소재와 대유엠씨는 22일, 금호산업은 25일, 금호타이어는 30일에 주총이 예정돼 있으며, 코스닥시장의 서산이 23일, 행남자기 24일, 해원에스티가 30일 주총을 갖는다. /윤영기기자 penfoot@

작년 보험사기 3305억원 적발

경기침체 여파 … 고의 추돌·방화 등 급증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천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로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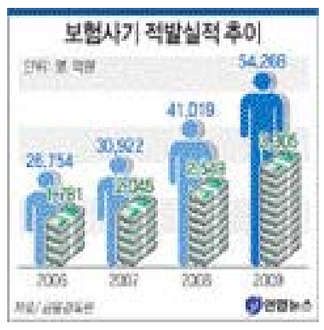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3천305억원, 적발 인원은 5만4천268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9.7%, 32.3%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보험사기 혐의자를 직업별로 보면 무직·일용직이 가장 많은 1만6천25명으로 29.5%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회사원(14.4%), 자영업(9.8%), 운수업(7.2%) 등의 순이었다.

이중 무직·일용직은 전년보다 136.8%가 급증했다. 금감원은 경기침체로 소득 기반이 취약한 계층의 보험사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사기 유형(적발금액 기준)은 허위 사고가 2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고의 사고(23.4%), 운전자와 사고차량 바꿔치기(17.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을 받으려고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추돌한 사고는 146억원으로 122%, 방화는 117억원으로 205.5% 급증했다.



보험 종류별 사기금액은 자동차보험(67.7%), 생명보험의 보장성 보험(13.7%), 손해보험의 장기보험(13.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가계대출 소폭 감소

광주·전남지역 가계의 예금취급기관 대출이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예금취급기관(은행+비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광주가 11조7천260억원, 전남이 10조370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각각 1천140억원, 930억원 감소했다.

광주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1월말 11조6천530억원을 시작으로 2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3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남지역도 지난해 2월 처음으로 10조1천3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1월에 상승세를 멈췄다.

광주의 1월 현재 주택대출 잔액은 6조8천500억원에서 6조8천49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1억원 줄었으나, 전남은 3조6천20억원에서 3조6천190으로 상승했다.

전국 가계대출 잔액은 549조7천억원으로 전월말보다 1조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은 작년 9월 900억원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지성 위스키 나온다

페르노리카 한정판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일명 ‘박지성 위스키’가 나온다.

위스키 업체 페르노리카코리아는 다음달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주제로 한 위스키 한정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006년부터 아마추어 직장인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맺어온 축구와의 인연을 월드컵에 접목해 박지성을 주제로 한 위스키를 내놓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